

종합·해설

광주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주요 사업

낙후 도심 살려 삶의 질 향상

세월이 흐르면 도시도 늙는다. 늙은 도시를 그대로 보존하면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도 하지만, 새로 짓는 게 발전의 상징인 한국에서는 방치되고 황폐한 도시가 되기 십상이다. 실제 1990년대 이후 구도심은 거주인구는 물론 상업시설들이 떠나면서 낙후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지만, 선거가 끝나면 신도시 건설에만 치중해 온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광주도 상무지구와 수완지구 등 신도심이 건설되면서 구도심의 낙후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때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경기악화로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구도심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나온 해결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再生)은 말그대로 낡거나 망가져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도시를 가꿔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나뉜다. 근린재생형사업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체 사업이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도시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핵심사업을 포함해야한다. 따라서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며, 국비 지원을 받는다.

광주 도시경제기반형사업 5대 프로젝트

- ① 광주천 생태복원 - 양동복개구간 철거... 용봉천까지 정비
- ② 사직동 주변 재생사업 - 도시역사 보존하고 문화산업 육성
- ③ 효천1 전통문화관광지구 개발 - 주거 상업 복합 공간으로
- ④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 - 도로 공원 등 배후 주거지 정비
- ⑤ 문화전당 주변 개발 - 7대 문화권별 세분화 경제기반 조성

광주시는 현재 도시경제기반형사업으로 5가지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광주천 생태복원 사업'은 양동복개구간을 철거한 뒤 광주천을 'Eco-River-Walk'로 조성하고,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이다. 양동시장내 건물, 담전길, 수산시장 주변도 재생사업으로 정비된다. 또 무등산 정상의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광주천과 용봉천 등의 생태를 복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사직동 주변 경제기반재생 사업'은 남구 사직동과 양림동, 동명동 일원(482m) 녹지 및 경제기반시설 정비, 순환형 임대주택 958세대 조성, 에코브리지(생태통로) 설치 등이다. 사직공원 등 광주 주요 역사문화공간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효천1 전통문화관광지구 개발사업'은 남구 송하동 일원 937m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주거·상업·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재생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송정역 주변을 상업·업무·문화지구 등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배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개발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경제기반조성사업'은 ▲아시아인권문화권 ▲아시아 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생태환경보전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등 권역별 7대 문화권으로 세분화해 도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의 강점과 도시활성화 계획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지역민의 삶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뉴스 초점

문·안 '단일화'를 어떤 방식 될까?

여론조사 유력... '+a' 담판 가능성도

(배심원제·공론조사)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배심원제 - 배심원단 선정 TV토론 실시 뒤 지지후보 물어

공론조사 - 동수로 선거인단 모집 정보 제공 뒤 후보 정해

심원이나 패널 등을 선정할 시간, TV토론을 보게 할 시간,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 도출이 늦어지면 여론조사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응답자 선정, 질문 내용, 조사 시기, 조사기관 등을 선정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구 조정을 놓고도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비공개를 전제로 여론조사를 한 뒤 담판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즉 양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만나서 담판을 짓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결국 담판으로 결정하거나 후보 등록 이후 단일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단일화 를 확정 시점도 관심사다. 문 후보는 20일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여론조사만으로

하더라도 TV토론 방송사 협의, 여론조사 기관 선정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 여유를 가지려면 24일에는 여론조사가 끝나 후보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심원제나 공론조사의 조사 대상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2~3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일에는 시행세칙까지 합의해야 경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그러나 데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5일을 후보 확정 마감시한으로 제시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재야 원로 원탁회의 "단일화 이후를 구상해야"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석사과정(02년) : 광주반, 여수반  
▶특별전형('12. 12. 5까지 접수)  
▶일반전형('12. 12. 19까지 접수)  
■최고정책과정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 http://cnugpa.kr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재야 원로인사들로 이뤄진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는 19일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와 관련, "단일화 이후를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협상 재개 및 두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단일화 반

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일화 협상 타결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우선, 문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쇄신 가속화를 강조한 뒤 "경선 승리 뿐 아니라 이겼을 경우 안철수 지지 세력을 어떻게 포괄할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며, 졌을 경우 어떻게 선거에 협력하고 당선 뒤의 국정운영에 동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 "경선 승리에만 집착하면 본선은 물론 경선에서도 실패하기 십상"이라며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재창당 수준의 민주당 혁신이 민주당을 포괄하는 신당 창당을 전제로 국민이 동의하는 시기에 입당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두 후보에게 현재차 비정규직 노동자 사태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언급과 관련, 김상근 의원은 기자들에게 "단일 후보로 됐을 경우 입당 문제까지 포함해 폭넓은 생각을 가지라는 취지"라고 밝혔으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입당하라,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 정당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빛의만평** - 김중두

제생각이 납니다. 그죠?!

**"Thailand: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Investment Policies"**

**태국투자청의 투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국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태국은 세계은행이 가장 사업하기 쉬운 나라로 선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태국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태국입니까?**

- 아시아시장 진입을 위한 허브: 태국은 위치상, 중심의 잠재 고객들이 있는 아시아시장 진입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양한 지원과 혜택 및 경쟁력의 확보: 태국투자청의 한국 투자자를 위한 지원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고급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로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고, 태국의 FTA 체결로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한층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세계수준의 인프라: 현대적인 운송, 통신, 유틸리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편리한 거주환경 및 문화생활의 향유: 편리한 숙박, 현대적 의료시설 및 레저시설은 거주환경의 편의를 제공하고, 태국의 문화 체험 및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투자자를 더욱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상담을 원하십니까?**

태국 투자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십시오.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투자공사참사관 Mr. Pichit Dejneerant  
전화 : (02)319-9998  
팩스 : (02)319-9997  
웹사이트 : http://www.boi.go.th  
E-mail : seoul@boi.go.th  
위치 : (우)100-706, 서울시 중구 송파로 17가 25-5 고려대연락타워 18층 1804호

**태국투자청의 투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국투자청은 한-아세안 센터와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012년 11월 28일(수)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투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Thailand: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Investment Policies" 라는 주제로 태국의 산업현황 및 사업 기회 그리고 태국으로의 진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태국투자청 부청장을 비롯하여 산업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태국 상무부 관계자가 태국 사업개시 및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태국에서의 사업 기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12. 11. 28(수) 10:00 ~ 15:30  
**장 소:**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 대연회장(4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주 최:** 태국투자청, 한-아세안 센터, 광주상공회의소

참가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 고한석  
**연락처:** 02-319-9998  
**이메일:** boiseoul@hanmail.net

**www.boi.go.th**  
THAILAND BOARD OF INVESTMENT